

## 학생회비 감사 지연 '논란'

###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연기 거듭 ... 부정기 감사 예정

방학기간 동안 진행돼야 했던 상반기 학생회비 감사가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회비에 대한 정기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는 각 단과대 대의원들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평주 총대의원장(야간국제통상4)은 "제 때 감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차후 사과성명서를 게시하고 부정기 감사를 통해 상반기 감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총대의원회 활동 어려운 이유

이처럼 감사를 실시하는 총대의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학년과대표들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꺼리기 때문이다. 즉, 대의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이 큰데 반해 장학금 혜택 등 아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대의원장을 맡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의원장이 선출된 단과대는 6곳으로, 총대의원회 측은 이번 주 내에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에 감

사시행 공문을 발송해 중앙자치기구의 경우는 20일, 단과대의 경우는 15일 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총대의원회 구성이 계속 어렵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회비의 내역과 학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회비의 납부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 이래 학생회비 납부율이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학기 재학생 12,772명 중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6,067명으로, 50%에 조금 못 미치는 납부율을 보였다.

#### 학생회비 어떻게 분배되나

현재 1인당 학생회비는 8,000원이다. 이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수로 계산하면 지난 1학기 납부된 학생회비는 총 4천 8백여 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각 단위의 예산분배에 앞서 대동제 비용과 선거공영제비용으로 총 650만원을 자동적으로 제외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중앙자치기구 4곳(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과 야간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단과

대 예산분배가 이뤄진다.

중앙자치기구의 경우 총학생회가 715여 만원, 총여학생회와 총대의원회가 각각 190여 만원, 동아리 연합회가 200여 만원의 예산을 배분받는다. 12개 단과대의 경우 모든 단과대에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지급 비용과 단과대의 인원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인원지급 비용으로 예산이 결정된다.

그러나 전체 학생회비가 줄어들어 따라 많은 단과대 학생회들은 현재의 학생회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부 학생회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해, 학기당 40만원 씩 학생회 집행부에 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학생회비의 납부를 저하 현상은 곧바로 학생회 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부실한 감사로 이어져 자칫 학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무관심은 다시 학생회비 납부를 거부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반복돼, 학생자치기구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그리고 각 단과대 학생회의 노력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Before & After ... 지난 10일 '클린동국 캠페인'의 일환인 교내 '차 없는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소 주차량의 약 30%가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사진은 행사전과 행사 당일 만해광장 앞 도로의 비교모습.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 수시 2학기 경쟁률 13.54대 1

### 연극학부 70.96대 1, 사학과 30.86대 1 순

2008학년도 신입생 수시 2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11일 13.5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입학처(처장=고유환·북한학)에 따르면 이는 13.22대 1이었던 지난해 경쟁률과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번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일반우수자 △불교계추천 △리더십전형 △외국어고 △국제고출신자 △사회기여자 자녀 △외국어우수자 △TOEFL △외국어우수자(JLPT) △외국어우수자(독일어) △외국어우수자(HSK) △전문계고교 출신자 △문학재능우수자 △체육기능우수자 △체육특기자 등의 전형으로 모집했다.

작년 2학기 수시모집과 달리 외국어우수자 전형이 세분화 된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원 인원은 일반우수자 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 수가 각각 738명과 519명인 총 1257명으로 작년 대비 168명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수시 1학기 일반우수자 전형이 없어짐에 따라 예년보다 수시 2학기 지원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일반우수자 전형의 예술대학 연극학부로 25명 모집에 1774명이 지원해 70.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사학과로 7명 모집에 216명이 지원해 30.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 합격자는 10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논술고사와 실기고사 및 면접을 거쳐 11월 12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입학관리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일 취업박람회 만해광장에서

### CJ, 한국전력, NHN 등 다양한 기업 참여

2007 동국대학교 취업박람회(Job Festival)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기기업 및 외국계기업, 우수 중견기업(CJ, 한국전력공사, NHN, 신한은행 등)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일자리와 현장면접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취업박람회와는 다른 페스티벌 형식으로 학생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컨설팅관에서는 면접이미지와 이력서 및 해외 인턴십, 아나운서

리포터, 직종별 자격증 컨설팅이 이뤄지며, 취업지원관에서는 이력서용 사진 무료촬영,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취업사주카페와 지문인적성검사, 취업골든벨, 이미지 커리큘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학생서비스팀이 주관하며 취업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 17일 부터 사과대 '능금제' 진행

### 김지훈 감독 강연회 및 가요제와 문화제 개최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정원철·사회3)가 오늘(17일)부터 나흘간 사과대 축제인 '능금제'를 진행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능금제'는 사과대 학생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인 오늘은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의 강연회가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이와 함께 오후 3시 30분엔 '불리버리안 혁명'이 8시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 각각 L326과 나체밭에서 상영된다.

18일에는 한국외대 신은희 교수 강연회가 오후 5시 30분 동국관(L동) 312호에서 진행되며 영화 '인디스월드'도 함께 상영한다. 19일에는 오후 6시 동국관 옆 주차장에서 가요제와 및 문화제가 개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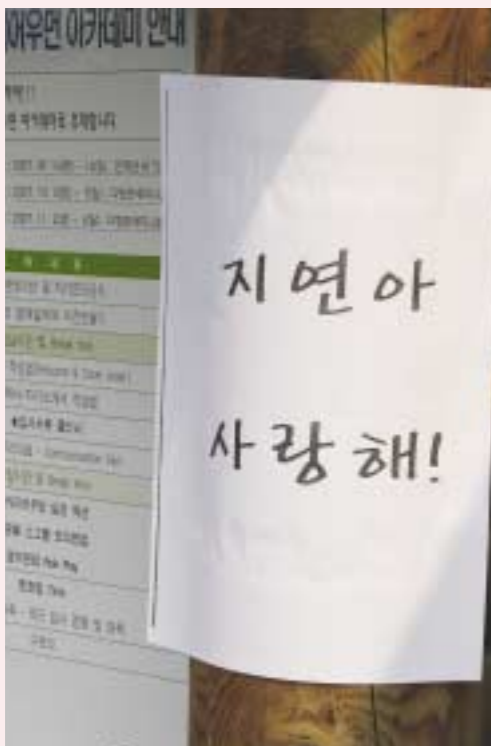
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전날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무한퀴즈! 친해지길 바래'가 진행된다. 그 밖에 부대행사로 바비큐파티, 과일주 담그기, 동국관 보물찾기 등이 열린다.

#### 송편빚기 대행사

추석맞이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행사가 오는 18일 계산관에서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 주최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추석의 의미와 떡에 관한 설명을 듣고, 송편을 직접 빚는다. 모아진 송편은 중구 소재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으로 전달되며, 출품한 송편중에서 잘 빚은 송편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이다.

## 숨은 동국 찾기



### 어떤 지연이니??

지난 주 월요일, 동아에 있는 모든 '지연이'들, 혹시 다들 설렘겨 아니예요?!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18일까지 학점포기 신청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학점포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점포기원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각 단과대 학사운영실에 제출하면 된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은 △2006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중 2007학년도 Course Catalog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 △기준에 소속 학과 과목으로 취득한 과목 중 현재는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이다.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사학과와 역사교육과, 수학과와 수학교육과 제외) 과목 수, 학점, 평점에 관계없이 포기 신청할 수 있으나, 포기를 확정된 과목은 복구가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보직인사 단행

본교는 보직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학사부총장 겸 대학원장=최순열(국어교육), △전략기획본부장=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 △학사지원본부장=이명천(생명·화학공학) (이상 9월 10일자)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장=조원생 △산학협력단 R&D사업팀장=이창학(산학협력팀)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신기훈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장 겸 동국미디어센터 출판사업팀장=김윤길 (이상 9월 17일자)

## 정각원 개강법회 개최

정각원(원장=박종호)이 오는 20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개강법회를 개최한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법사로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는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모두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다.

## 20일 한가위 한마당 열려

오는 20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생협학생위원회(위원장=김기현·경행4)가 주최하는 한가위 한마당이 열린다.

11시부터 5시간 정도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제기차기, 짚공예, 활쏘기, 널뛰기 등 전통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며, 송편과 식혜 등 전통 음식 시식회를 열어 동국인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또한 이날 한가위 특별상품인 과일류, 전통차 등을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 알림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제1448호는 10월 8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기획 미디어 포털 '동국인'



## Contents Creator

### 관련지면 4면 기획면

- 동국인 사이트는 왜 만들어졌나?
- 동국인은 어떤 사이트 인가?
- 동국인을 만드는 사람들

발전기금 060-700-0119

# 100만원을 잡으세요! 기획은 당신의 것!

### 제45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2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 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 제출 : 10월 22일(월) ~ 11월 9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 입상발표 : 2007년 11월 26일자 동대신문(예정)
- ☎ 문의 : 02)2260-3491 ~ 2

학사부총장 인터뷰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

- 신임 학사부총장으로서 취임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영광스럽다. 또한 학교가 힘든 시기에 학사부총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학교발전을 위한 ‘108프로젝트’의 원만한 추진에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제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교육적인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 더불어 우수신입생 유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전반적인 학교 수준을 높여도록 하겠다.

- CS경영마인드의 맥락에서 학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우리학교 영어교육의 경

우 졸업기준인 공인영어시험점수만 넘으면 된다는 식으로 단일한 진행을 해왔다. 자매대학교의 교류를 강화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자매대학교의 복수전공, 적정학기 상호보완 등을 통해 학업의 연계체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취업교육도 현재와 같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닌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실무적인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

- 동문을 포함한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앞에서 자긍심을 넘어 학교발전전에 대한 자기나태는 없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에 나가 동문들은 재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돼주어 피드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학교 측은 동문과 재학생 간의 ‘멘토링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학사지원본부장 인터뷰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할 것”



이명연(생명·화학공학) 본부장

-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 중인 것은.  
= 현재 전공교육과정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전공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은 학문과 산업 두 가지의 지향점으로 나뉜다. 학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기초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기르자는 취지이다. 산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학생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세미나 강좌, 외국어강의강좌, 현장학습교과목, 팀티칭 강좌 등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 추진 상황 및 계획은.  
이운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전략기획본부장 인터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정착하도록 노력할 터”



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 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취임 소감은.  
= 그동안의 보직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더군다나 전략기획본부는 예산정책과 정책수립이라는 학교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더욱 어깨가 무겁다. 아직 전략기획본부장의 역할에 대한 파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 업무파악과 해나갈 일들에 대한 구상을 할 생각이다. 내실 있는 전략기획본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취임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앞두고 학교와 교수 등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를 안정적으로 학교행정에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 학교가 의적

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구성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총액예산제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100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인 총액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첫 도입인 만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각 부서별 해야 할 업무, 기한 등을 분석해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 현재 학교가 안팎으로 여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냉정한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또한 학교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모습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찾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든 학내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리하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교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구성원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힘쓰겠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인전면대

긴가민가

○...건물 안은 금연구역 건물 입구 짜증구역 이건 밖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여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뒤집어 쓴 담배연기 이건 피운 것도 아니고 안 피운 것도 아니여

입구가 밝인지 안인지 헷갈리나요? 그럼 학생들의 지푸린 표정을 보세요

만능법회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로스쿨 유치 기원 대법회” 거짓취위 파문으로 명든 동국인들 가슴을 쓰다듬는 ‘위로법회’도 겸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유령수업?

○...강의계획서와 학교 전산망 모두 3회점짜리 이틀 수업이라는데, 어느새 누구 맘대로 하루로 통합됐대. 그럴 거면 전공 하나 더 들을 수 있도록 전산망에 수정이라도 해주오. 시간표엔 있고 수업은 하지 않는 유령수업 때문에 시간표상 나는 헤르미온느가 될 신세.



새로운 협약, 새로운 시작 ... 지난 10일 태국의 마하출라롱콘대학교와 우리학교가 학술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마하출라롱콘대학교는 태국의 2대 불교대학 중 하나이자, 참선의 중심지로서 이번 학술교류를 통해 우리학교 불교학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동약로에서

### 행정상 편의(?!)

“개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 사과대 A양의 푸념이다. 그녀는 지난 2주간 대부분의 수업을 듣지 못했다. 신청했던 수업 하나는 폐강됐고 정정하고 싶은 수업도 생겼다. 계획했던 시간표가 영커 정정기간 때 다시 시간표를 짜야만 했다. 정정 후, 들어간 강좌들 가운데 이미 몇 차례 강의의 한 것이 있었다.

“오늘 이 수업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조별 발표는 어찌고...” 교양강좌 B교수의 4번째 강의 첫 마디다. B교수는 현재 4번의 수업을 가졌지만 그때마다 보이는 새로운 학생들로 강좌소개 및 일정설명만 하다가 2주를 보냈다.

이는 A양과 B교수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주간 우리학교 학생 및 교수들이 겪었던 상황이다. 수강신청 정정일이 개강연기일과 동일하게 이를 연기됐어야 했지만 하루 더 미뤄지면서 생긴 문제가 정정일을 10일로 변경한 이후에 대해 교무팀 직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어차피 주말 발표는 어찌고” 교양강좌 B교수의 4번째 강의 첫 마디다. B교

‘행정상의 편의’라는 이유가 2주간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긴 것이다. 그러나 교무팀은 종강일을 학사일정에 정해진 대로 12월 21일에 한다고 밝혔다. 정정기간이 미뤄지면서 부족해진 강의시간에 대한 보충강의는 교수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학사일정을 미루게 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보충강의는 주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뤄져 교수와 학생 모두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 못한 강의로 인해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특히, 수요일 하루만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하다.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2주 동안 쉬기 때문이다. 지난 수요일까지 정정기간이 이뤄지면서 정상수업을 받는 날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대학행정은 기업경영과의 차이가 있다.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희생당하는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그러하다. 교육은 대학의 존재이유이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학사행정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

### 글쓰기센터 상담프로그램 안내 Counsel Program

프로그램	일반상담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석사과정)	당일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상담내용	자세한 질의 및 상담	간단한 조언	간단한 이메일 코멘트
신청방법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일 방문 신청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반상담 프로그램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이 있습니다.

▶ 학부생 상담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글을 쓴 이후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글쓰기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양수업과 관련된 모든 글(발표문, 서평, 기말 보고서 등)이 상담의 대상이 되며, 상담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담당합니다. 보고서의 계획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상담 : 글쓰기센터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표문이나 기말보고서, 학위논문의 개요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임연구원이 담당하며, 주로 글을 계획하고 구조를 만드는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일방문상담 프로그램(주 2일 8회 4시간 한정)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글쓰기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상 단계에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 상담을 원할 때는, 당일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한 후, 글쓰기센터로 찾아오면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상담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받고 싶을 때는 이메일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글에 대한 자세한 질의나 조언은 불가능하며,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의를 원할 경우, 이메일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글쓰기센터 홈페이지가 준비 중이어서, 상담프로그램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예약 받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원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 게시된 상담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담 시간표 / 2007년 2학기(9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비고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학부	당일/대학원	
09:00~09:30											
09:30~10:00											
10:00~10:30	홍진영										
10:30~11:00	홍진영		홍진영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00~11:30	홍진영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1:30~12:00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2:00~12:30					박성순(당일)						
12:30~13:00	홍진영				박성순(당일)				박성순(당일)		
13:00~13:30	홍진영		홍진영		원치승		박성순(당일)		박술잎		박술잎
13:30~14:00			홍진영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00~14:30					원치승		박술잎		박성순(당일)		박술잎
14:30~15:00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00~15:30					원치승		박술잎		원치승		홍진영
15:30~16:0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00~16:30					원치승		원치승		박술잎		박술잎
16:30~17:00					원치승		박성순(대학원)		원치승		박성순(대학원)
17:00~17:30					박성순(대학원)				박성순(대학원)		
17:30~18:00					박성순(대학원)				박성순(대학원)		

○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 박성순 전임연구원 / 대학원생 상담 / 2260-3380 jayion@naver.com  
 ▷ 홍진영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heukchun@naver.com  
 ▷ 박술잎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pooh322e@naver.com  
 ▷ 원치승 연구조교 / 학부생 상담 / 2260-3380 csweon@yahoo.co.kr

---

### 2007년 2학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 지원 대상 : 2007년 2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선발 인원 : 0명(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 신청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07년 9월 11일~2007년 9월 21일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eukchun@naver.com)로 제출.  
신청서는 교양교육원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7년 9월 28일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찾아서

# 학내 숨은 커뮤니티, 문을 두드려보자

## 유용하고 참신한 정보 가득 ... 교양 있는 대학 소통의 장 기대

동국인들은 과연 어떤 '장'에서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보도매체를 통해 1만2천 동국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을까. 우리 신문은 우리학교 학생이 운영중인 인기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오늘 불인 출책했나요?" "수강신청 정정하다 못 들어가서..." "오늘 2시 팔정도에서 분, 하늘색 워크스 입은 분 무슨 과예요? 반했습니다. 꼭 찾고 싶어요!"

동국인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따끈따끈한 정보를 접하려면, '동국대학교 대표 커뮤니티 D-yeon(club.cyworld.com/d-yeon, 이하 디연)'을 찾아야 한다. 디연은 06학번 수시합격생 모임으로 개설된 지 2년됐다. 현재 게시글 수가 1만7천 여 개에 달한다. 자유발언, 동아리 소개 등 여러 게시판이 마련돼 있고, 오 근래 수강신청기간에는 강의정보 공유와 신청강의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참신함이 돋보이는 '니모를 찾아서'는 학내의에서 본 호감 가는 이성의 인상착의와 같은 단서를 남겨 동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판이다.

지난 2005년 수시합격 된 이후 가입해 지금까지 디연을 찾고 있다는 임혜림(수학2) 양은 "강의평가 게시판의 경우 매 수강신청 때마다 항상 체크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학교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디연은 최근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새로 독립된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웹진을 발행해 한층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사이드 하위에 개설돼 있는 동국갤러리(http://gall.dcsinside.com/list.php?id=dongguk)에도 학내외의 여러 현안들과 강의 관련 게시물이 하루 평균 40여개 씩 새로 올라오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동국대 재학생을 위한 좋은 수업 정보나눔터(www.freedu.wo.to)'에서도 수년간 많은 강의추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 왔다.

한편, 보도매체로는 '지라시(www.zirasi.net)' 신문이 대학 당국의 직간접적 관여가 없는, 학생에 의한 대학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창간되어 최근 3호까지 발행했다.

재학생 2명이 기획·발행한 지라시는 학제개편과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큰 주제로 잡아왔으며, 대학의 정책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라시의 박성환(법학3) 기자는 "학내 여러 현안에 대해 학생들은 당연한 알권리를 갖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 실망을 느끼기도 했다"며 고충을 말한다.

지라시는 다른 단과대학의 문제 등 자신의 학업

생활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들에 대한 재학생들의 의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커뮤니티는 대부분 철저한 익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 그러나 지나친 통신어체와 자칫 선정적일 수 있는 콘텐츠들은 대학생으로서 경계해야 할 점이다.

서울대의 SNULIFE, 이화여대의 이화이언 등 많은 대학들이 활발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들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새로운 유대를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 알찬 정보와 대학현안에 대한 의식을 두루 갖춘, 대학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현 객원기자  
niitake@dongguk.edu



▲ 싸이월드 클럽 'D-yeon'의 메인 화면

## 'D-yeon', '지라시' 운영진 인터뷰

#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해 존재합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치적인 여론매체를 만들어 가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동국대 관련 커뮤니티 중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D-yeon(디연)'의 운영자 임한술(법학2) 군과 학생 자치신문 '지라시'의 기자 노시은(법학3)·박성환(법학3) 군을 만났다.



▲ 'D-yeon'의 운영자 임한술(법학2) 군

▲ '지라시' 기자 노시은(법학3) 군과 박성환(법학3) 군

현재 싸이월드 클럽 디연의 가입자 수는 4천 5백 여 명. 우리학교 재학생 수가 약 1만 2천 여 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 3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06학번 수시합격생들의 모임이 싸이월드 클럽으로 옮겨진 뒤 현재의 '동국대학교 대표 커뮤니티, D-yeon.com'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임한술 군은 수시모집 합격 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 디연을 만들게 됐다. 그는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입한 클럽의 운영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지만, 익명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왔을 때 일에 회의가 들었다고 한다. "좀 더 많은 소재, 많은 학생들의 활발한 의견공유의 장이 되어 동국대학교 학생들만의 독립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표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평소 학생의 의견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라시를 창간하게 됐다는 노시은 군과 박성환 군. "다른 학생들처럼 공강 시간의 여유로움을 즐긴다든가, 학원을 다

는 것은 꿈도 못 꾸죠"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바쁜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가벼운 학생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라시의 발행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후원금을 보내 주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을 기자가 아닌 학생들만 바라보는 몇몇 취재원들 때문에 자주 애를 먹는다며 어려움을 털어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신문의 성향을 운동권 혹은 비운동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학내의 언론 견제와 학생들의 의견 대변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는 그들의 발기문처럼 두 기자와 함께하는 지라시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 2.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토론

글 쓰는 순서	
1. 독서	5. 평가
2. 토론	6. 나만의 생각
3. NIE	7. 유의사항
4. 연습	

일시 논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으로 본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준비 연중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논술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 나만의 생각 ●유의사항
- 편집자

# 토론, 논리력의 원천

### 토론 - 역동적 의사소통 양식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우리' 보다는 '나', '전체' 보다는 '개인'의 비중이 많이 드러나는 글쓰기다. '개인'이나 '자기'라는 말은 언어 본질의 한 측면을 가리킨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자기'와 함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엄밀하게 말해 '자기의 생각'은 '수많은 다른 생각'들의 도출의 산물이다.

토론은 도출의 산물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형식이다. 독서와 논술이 읽고 쓰는 능력에 해당한다면 토론과 논술은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에 속한다. 즉 의사소통의 현장성과 실시간적 특성이 두드러져서 독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동적이다. 토론은 상대방과 나의 생각을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이다.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논리가 강화된다. '혼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잘 난 지식인보다,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토론한 지식인이 더 낫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적이다.

### 토론의 생활화 - 고급한 수다라면 자주 하는 게 도움 돼

그러나 우리의 학교 환경이 아직 토론학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과 과정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토론의 생활화를 권유한다. 가족들과 식탁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대화하는 것, 쟁점이 될 만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부담 없이 수다를 떠는 것 등이 평소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런 사적 영역의 대화활동은 '근접발달영역'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자의 학습 영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 도와줄 경우, 학습자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교육학이론이

다. 그러므로 토론의 대상은 적어도 자기의 지적 수준과 비슷하거나 나은 사람이 좋다.

이 권유는 논술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 3 수험생들에게도 유효하다. 쓰기 연습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 감정은 죽이고 논리는 살려야

토론은 다양한 형식이 있다. 책을 읽고 나서 하는 독서토론, 시사 쟁점을 다루는 쟁점토론, 찬반 견해를 겨루는 찬반토론 등 대부분이 논리적 사고 훈련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연습할 수 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의 청취자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전 토론에 필요한 몇 가지 규칙을 소개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예/아니오'에 대한 이유 말하기 △쟁점이나 주제 벗어나지 않기 △발언권 독점하지 않기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문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기 △비판과 비난 구분하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 △침착히 논리에 따라 말하기 △토론이 끝난 후 반드시 결론 도출하기 등, 이런 요건들만 잘 지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입장 바꿔 토론해보기

쟁점토론이나 찬반토론 훈련은 통상적으로 1. 논리를 세우고(입론), 2.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고(반대입론), 3. 자신의 논리를 다시 강조하는(회종변론)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찬반 역할을 상대방과 교대로 해보면 더욱 효과가 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했던 자기 논리를 이제 다시 방어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체조'가 쉽지는 않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논술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윤재웅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8년 논술연구위원

#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세계 명문 동국, 이십만 동문의 후원으로 완성됩니다!

### 이십만 동문의 뜨거운 후원은 World wide Dongguk 구현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배사랑 등록금 후원 캠페인'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는 모교사랑의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사업개발본부  
(02-2260-3300, 3794~5)

### 기금납부방법

####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 \* 신한은행 : 140-000-649193 \* SC제일은행 : 107-10-119210
- \* 외환은행 : 065-13-19061-0 \* 국민은행 : 068-01-0373-353
- \*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 농협 : 360-17-003822
- \* 우체국 : 012328-01-001567

#### ■ 자동이체(CMS)납부

신청시 필요한 사항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약정액, 월 납입액

#### ■ 인터넷 약정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http://www.dongguk.edu

#### ■ 지로 납부

사업개발본부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나 은행비치용 지로용지를 이용(지로번호 : 7606368)

#### ■ 자동응답(ARS) 납부 : 060-7000-119

기부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1통화만 유효하며 초과통화는 기부금액에서 제외)



▲ 왼쪽으로부터 DUBS 촬영장면, 대학원신문 편집회의 장면, 동국포스트 편집회의 장면, 동대신문 제작 장면.



- 미디어포털 '동국인' 누가 만드나

# '미디어 게릴라' 들이 한데 뭉쳤다

## 기자·PD·리포터 '멀티맨' 뜬다

### 매체간 교류, 공동제작 상설화 ... 전문가 양성소 기능도

동국미디어센터가 신설되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방송, 신문, 출판 등 대학미디어를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동국미디어센터는 대학미디어 통합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각각의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던 동대신문사, 교육방송국, 출판부를 미디어센터 산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번 호에서는 동국미디어센터의 신설배경을 알아보고, 미디어센터가 이끌어가는 학내 언론기자들을 만나보았다.

대학언론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오랜 전통을 핑계 삼아 변화에 인색했던 학내 언론사들이 통합미디어센터를 만들고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땀다. 그 바람의 중심에 우리학교 동국미디어센터(www.donggukin.org)가 서있다. 학내 언론 미디어 통합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히 하기 위해 고민하는 대학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보았다.

#### 미디어포털 '동국인' 구축관련 일지

- △ 4. 27 동국대학교 미디어 통합관련 첫 회의
- △ 5. 28 동국미디어센터 구축 관련 자문위원 위촉
- △ 6. 1 동국미디어센터 언론4사 홈페이지 구축작업 시작
- △ 6. 14 동국미디어 센터 구축 업체 선정
- △ 6. 27 동국미디어센터 구축, 정책조정회의서 보고
- △ 7. 6 ~ 7. 7 언론4사 통합워크샵
- △ 9. 3 동국포스트, 동국대출판부, 대학원 신문 홈페이지 오픈
- △ 9. 7 동국미디어센터 규정개정 법안 승인
- △ 동국미디어센터 교육방송국 홈페이지 오픈
- △ 9. 10 동국미디어센터 시연

#### 소통의 공간 '동대신문'

신정아 사건, 학교 이 곳 저 곳의 개선공사 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궁금하고 답답했던 일. 동대신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동대신문은 학교구성원, 동문, 예비 동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다 보니 학내사안뿐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신문을 만들기 위해 먼저 배정받은 출입처를 돈다. 출입처에서 취재한 정보는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어떤 사안을 기사화 할지 결정한다. 각자 담당기사가 정해지면 공간시간,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취재를 한다.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기자생활에 대해 윤혜경(기계공1) 기자는 "일반학생들보다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면서 여유보다 더 값진 넓은 시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기자의 말처럼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동대신문 기자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닐까.

동국인 사이트에서 텍스트 기사를 담당하는 이윤재(전기공2) 편집장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아무도 들어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신문사는 실시간 기사업데이트로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더불어 동국인 사이트로 인해 학내사안에 관한 토론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론을 이끌고 주무르는 언론이 아니라 학내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하는 무대가 되고 싶다는 동대신문, 대화와 토론의 장, 동대신문에 펼쳐진다.

#### 보고 듣고 느껴라 'DUBS'

읽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는 학생들, 이제 DUBS를 통해 세상을 보자. DUBS는 학내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TV방송과 오디오 방송으로 제작해 매일 방송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국영상페스티벌 개최 및 다양한 공모전 참여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작품 제작활동도 하고 있다.

오주연(사과대1) 국원은 "물론 방송국 인턴사원을 해도 방송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DUBS는 나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한다"라고 말했다. 오 국원의 말에서 DUBS속에서 언어가 가장 값

진 보람은 인간관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국미디어센터에서 영상부분을 기획해 나가는 채일기(광고홍보2) 학생방송장은 "앞으로 동국인 사이트에 영상 뿐 아니라 플래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다양한 성격의 학내인문사와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자리 걸음을 하는 대학방송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방송국이 될 것이라는 DUBS, 변화와 창조를 지향하는 DUBS를 통해 도약을 느껴보자.

#### 세계인과 대화하는 '동국포스트'

대학생 아니 한국인의 과제, 영어공부. 이제 The Dongguk Post와 함께하자. 세계화의 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영어능력은 필수 사항이다. 우리학교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는 학생들에게 가까운 학내 뉴스와 영어실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거진을 발간한다.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단신·보도기사보다는 인터뷰기사와 같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돼 있어 영어공부를 더욱 흥미롭게 한다.

동국포스트 전지민(문과대1) 기자는 "영어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값진 경험이지만 무엇보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 하면서 얻게 된 기자로서의 경험은 더 값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서현(영문2) 편집장은 "여름방학동안

DUBS와 함께했던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의 교수인터뷰처럼 다른 언론매체와 협력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와 해외 교류를 통한 해외 자매대학신문의 기사 등이 활발히 게재될 것 같다"며 동국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진정한 세계화는 혼자만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대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겠다는 포스트, 이제 동국포스트와 함께 세계를 바라보자.

#### 학문에 대한 고민 '대학원신문'

대학생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닐까.

이제 대학원신문 속에서 고민의 해답을 찾아보자. 대학원신문사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술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인문, 사회과학에서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학부생이 읽기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학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제방남(대학원 석사과정4학기) 편집장은 "중이 신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학생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앞으로 동국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기사를 접하고 학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동국인 사이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1988년 첫 발간 이후 편집이나 형식은 변해왔지만 원우들의 목소리와 고민을 담아내는 역할은 변함없다는 대학원신문.

그들의 신문 속에는 한층 성숙된 생각과 자세가 녹아 있다.

지금까지 동국인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네 곳의 학내언론 기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찾고 더 빛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들의 고민과 열정은 동국미디어센터가 커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 - '동국인' 탄생의 배경

## 통합미디어는 '시대의 흐름'

### 침체일로 대학언론의 활로 모색을 위한 미디어 '실험'

지난 3월 우리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 미디어 포털 '동국인'(http://www.donggukin.org)이 오픈하면서 '동국미디어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학내 미디어 통합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각각의 부속기관으로 편제된 동대신문사, 교육방송국, 출판부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미디어 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동국미디어센터의 기획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3월 28일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교육방송국과 오영교총장의 간담회를 가진 후 부터다.

우선적으로 행정조직의 일원화가 이뤄졌다. 신문, 방송, 출판을 하나의 부속기관 아래에 두고 통합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미디어 정책을 펴기 위함이다. 또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등 학내 언론을 담당하는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 워크샵과 동국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몇 차례 마련되었다.

학내 미디어 통합은 미디어의 융합현상과 대학언론의 침체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퓨전, 컨버전스, 하이브리드(hybrid) 등으로 표현되는 융합현상은 비단 과학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상 속에서도 퓨전 음식, 퓨전 음악 등 융합현상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미디어도 퓨전, 컨버전스의 영향하에 있다.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제작을 제공하고,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학언론은 신문, 방송, 출판을 통합운영 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때문에 타 대학도 통합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어떤 대학도 완전한 통합미디어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 지향할 모델이 없다. 대학언론 통합 미디어는 말 그대로 스스로 새 길을 그려나가야 한다.

현재 학교홈페이지, 각종 학내 언론 홈페이지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내·외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 때문에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통제는 용이하지만 정보의 유통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은 정보와 지식산출의 장이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동국미디어센터는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뉴스와 놀이의 공간을 제공하고 교수들에게는 논평, 토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문섹션을 기획해 동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뉴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미디어로 발전시키려 한다.

동대신문사 유재욱(국어교육)주간 교수는 "이번 학기에는 통합미디어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 기자들의 교육을 강화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 앞으로의 방향은 교내 소식,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 교내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 - '동국인' 100% 이용하는 방법

## 정보·오락·소통의 열린 한마당

### 누구나 객원기자 참여 가능 ... UCC, 동영상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동국미디어센터 홈페이지(http://www.donggukin.org)가 지난 3월 개강과 동시에 오픈했다. 우리학교의 모든 언론매체를 한데 묶은 '동국인' 사이트는 학내사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곳을 향해 도약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학내언론사 통합홈페이지 동국인 사이트를 소개한다.

①메인섹션은 △뉴스 △오피니언 △학술 △필

티미디어 △커뮤니티 △동문 △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섹션마다 5~9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성해 구체적으로 동국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으려 했다.

②홈페이지 화면의 가운데는 학내사안들을 전해주는 기사부분이 있다. 학내언론 뿐만 아니라 일간지나 잡지 등의 기사도 관련기사로 볼 수 있어 학내구성원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본 우리학교의 다양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③동영상 섹션으로써 DUBS에서 제작한 영상과 각종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이 실려 있다. 하지만 재미있고 신선한 영상들이라면 누구나 동국인 사이트에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 동국인 사이트는 동국인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다례토리 플러스로 △자유게시판 △프로젝터리 △자료실 △광의지식in △취업지원 △동문찾기 △알바 등 회원들이 꾸며갈 수 있는 공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돼있다. 회원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커뮤니케이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면 각종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⑤동국인 사이트는 개방형 구조가 눈에 띈다. 특히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보장은 동국인들의 소양과 양심을 믿고 허용한 만큼 우리 스스로 네티켓을 지켜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하겠다.

이밖에도 유머 게시판, 오늘의 책, 인물동정 등 동국인 사이트 내에는 흥미 있고 유익한 코너들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곧 학내언론사나 일간지의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객원기자 승인을 받으면 기사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국인 사이트는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새집에 불과하다. 동국인 사이트의 주인인 동국인들에게 선을 보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국인 사이트는 동국인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이트다. 이제 동국인 사이트라는 새집에 살림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상업음반 발매 100주년 기념 -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를 찾아가다

# 유성기음반으로 탐험하는 근대문화

## 문화연구의 새로운 자산될 것 ... 지속적 연구지원 필요

'씩씩영감' 처음 타는 기차노리  
라 차표파는 아가씨와 승강을하  
네 이세상에 에누리없는 장사가  
어디있나 딱거대자고 졸나대니  
원이런질색이'

누구나 한번쯤은 흥얼거리 보  
았을 이 노래를 기억하는가. 서영  
춘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쾌한 시골영감'은 1936년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강홍식이 부른  
곡이다.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 때  
발매된 음반에 실린 곡이라는 것  
을 알고 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홍도야 우  
지마라',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지  
금도 잊혀지지 않은 이 노래들은  
모두 유성기음반에 기록돼 시대  
를 풍미했던 '국민애창곡'들이다.

올해는 유성기음반이 한국 최  
초 발매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음반 발매 100주년을 맞아 우리  
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는 한인  
오, 최홍매의 한국 최초 음반을  
'한국의 첫 음반 1907'로 되살려  
냈다.

이 음반에는 유산가, 적벽가를  
포함한 8곡의 노래가 담겨져 있  
다. 2,30여장 발매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의 음반들 중 찾아  
낸 8개의 음반에서 복각한 것이  
다. 앞으로는 이 음반을 시작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순서  
대로 디지털화하고 CD로 제작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  
는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  
브'는 작년 총무로 영상센터의  
특성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아 연  
구를 시작한 총무로 영상센터의  
부속연구기관이다. 현재는 12명  
의 연구원들이 '한국 유성기음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유성기음반 데이터들  
은 현재 보유한 음원뿐만 아니라  
매일신보를 기준으로 모든 신문  
자료와 광고로 찾아낸 현존하지  
않는 음반 목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음반아카이브는 이를 토대  
로 '한국 유성기음반 총 목록' 증  
보판 발간을 준비 중이다. 이는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정리한  
1900년부터 1945년까지의 자료  
중 이미지를 뺀 가사와 목록을 총  
정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성  
기음반의 자료들을 모든 사람들  
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근대 문  
화 연구의 큰 축을 이루는 것들이  
다. 유성기음반에는 국악, 대중음  
악, 외국음악, 극음악 등의 노래뿐  
만 아니라 연극, 영화, 만담, 구술,  
음향 등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교과서를 낭독하는 한 음반

에서는 그 당시  
글을 읽는 역양  
이 평양어와 흡  
사했다는 사실  
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그 당  
시의 모습을 생  
생하게 담고 있  
다. 이렇듯 유  
성기음반의 자  
료들은 언어,  
문학, 음악 연  
구 등 무궁무진  
한 연구의 기반  
이 된다.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보유  
한다는 것은 문화연구의 원천소  
스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 자료들  
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무수한 연구  
들의 학문적 주도권을 가지게 된  
다. 이는 곧 학교의 학문에 대한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한국음반아카이브 연  
구책임자 배연형씨는 "우리학교  
에서는 음대가 없어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음악계와  
국악계에서는 이 사업이 초기의  
관심사"라며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음향기록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와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장소  
인 만큼 그를 위한 기초 기반이



- ① 강홍식의 '유쾌한 시골영감' 가사집
- ② 당시 고가에 판매되었던 유성기(축음기)의 판매광고
- ③ 유성기음반의 광고는 후기로 갈수록 집단적 광고에서 개인 음반광고 위주로 바뀌어갔다. 남인식의 개인음반 광고.
- ④ 한국 최초 유성기음반을 복원한 '한국의 첫 음반 1907'



### 대학인을 위한 음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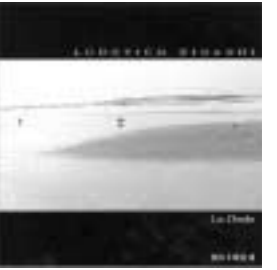
## 가을 날씨처럼 서늘한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줄 친구를 소개합니다!

글렌 굴드 - ... And Serenity



올 가을은 캐나다 태생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탄생 75주년이자 서거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워낙 기록을 남기는데 천착했던 아티스트라 앨범 선택의 폭은 넓지만 언제나 인구에 회자되는 건 1955년과 1981년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하지만 훈한 추천 대신 한 장의 덜 알려진 컴필레이션 앨범이 가을 분위기에 딱 잘 어울린다. 벨랑홀릭한 분위기의 이 앨범은 어떻게 보면 매우 글렌 굴드답지 않은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듣다 보면 고요히 듣는 이를 잠잠시키는 마력이 있다. "예술의 목적은 아드레날린의 순간적인 방출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와 고요의 경지를 점진적으로 전생애 걸쳐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글렌 굴드의 말처럼.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 Le O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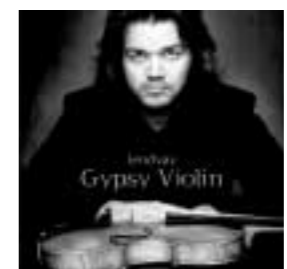


그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 대의 피아노를 위해 작곡하고 연주한 그의 음악이 지닌 매력은, 문외한이라도 금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원래 클래식에서 출발해 무용음악 등 직접 작곡가로 활약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발표한 <Le Onde>라는 이름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앨범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이 음악을 듣는다면 심장박동 처음 몇 마디 만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요요 마, 엔니오 모리코네를 연주하다

위낙 많은 디스코그래피를 자랑하는 엔니오 모리코네지만, 첼로라는 악기로 그의 음악을 표현한 앨범을 소개해 볼까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그와 관련한 앨범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르를 불문한 올스타들이 만든 트리뷰트 앨범까지 소개되었지만, 단연 베스트를 꼽자면 첼리스트 요요 마가 연주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집이다. 곡은 물론이거니와 곡의 분위기를 빼어나게 살린 연주 또한 일품이다. 특히 요요 마의 거장에 대한 존경심,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리는 곡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애,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자 하는 열의와 집중력 등이 첼로 고유의 서정적 음색에 더해져 원곡의 맛을 한껏 살려내고 있다. 가을이면 꼭 한번 꺼내어 들어볼 만한 앨범.



렌드바이 - 집시 바이올린

요제프 렌드바이는 헝가리의 전설적인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가문의 7대손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심지어 그의 두살짜리 아들조차도 '요제프 렌드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티보 바르가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정통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앨범과 공연 속 그의 바이올린에는 어떠한 속박도,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없다. 민속음악의 애수 편 선율을 거침없이 노래하는 한 대의 바이올린이 있을 뿐, 앨범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라이브에서 항상 연주하는 '종달새'는 어떤 상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일품 연주다.

김보경  
소니비엔지 마케팅 과장



대한민국의 유성기 풍자만화 1909. 9. 1.

우리나라에 유성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9년 3월이다. 여러 신문에는 이 신기한 유성기 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받는 집의 광고가 나와 있어서 당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성기는 실로 경악할 만큼 놀라운 신문물이었기에 그만큼 호기심도 컸다.

190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협률사가 건립되고 1903년에는 동대문의 한성전기회사에서 활동사진소를 개관하였다. 이후

극장 공연은 청일전쟁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06년 2월 협률사가 재개관하여 원자사로, 동대문 활동사진소는 광무대가 나와 있어서 당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성기는 실로 경악할 만큼 놀라운 신문물이었기에 그만큼 호기심도 컸다.

당시 극장의 공연 모습을 보면 동대문 전자 차고를 광무대 극장으로 개조하고 활동사진과 창극 혼향전, 잡가, 가야금, 승무 등을

### 유성기 음반 탄생의 시대상

# 대중의 소리담은 신나는 근대

공연하였으며 꼭두각시놀음을 하기 위해 무대를 바꾸는 틈에 유성기로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다. 초창기 유성기는 워낙 고가여서 일반인들은 극장이나 유료감상실을 통해 유성기를 접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음반에 수록되는 곡들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만 취입되었고 당시 극장에서 자주 공연되던 서울소리 중심으로 발매되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호객용으로 유성기를 사용하였는데 친일단체인 '국시유세단'이 그런 예이다. 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친일단체

의 알뜰한 술수이기도 하지만 유성기가 보급되면 그 당시에 대중들의 관심을 반증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식 극장의 출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연시장의 급속한 성장, 환등기나 활동사진 같은 영상물을 통한 새로운 문물의 소개, 딱지본 책의 출판 등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문화현상을 일으켰다. 즉 공연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연물은 완판본 혼향전이나 딱지본 신구잡가와 같은 전통적인 문자매체로 기록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진술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최첨단 매체인 음반으로도 담기게 된 것이다. 문자, 영상, 음향이라는 매체가 문화상품에 재수용되어 유통됨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2차적인 문화의 향유라는 근대적인 문화현상을 불러왔다. 그러나 극장은 공연을 놓고 공연은 다시 딱지책과 유성기판과 기생의 브로마이드를 탄생시켜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유성기음반의 탄생과 함께 신나는 근대가 탄생한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낡은 M.T.는 버리자



김승우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1990년 대학입학 후 1996년 2월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활 내내 학생회 활동을 했던 이유에서 그런지 MT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 시절 동안 학과MT, 동기MT, 학년MT, 학과 소모임MT, 동문회MT, 동문 동기MT, 과 집행부MT, 단대 집행부MT, 동아리MT, 동아리 연합회MT, 총학생회장 선거 뒷풀이 MT, 등 정말로 여러 종류의 MT를 실 세 없이 다녔던 것 같다. 다녀왔던 MT장소도 우이동 사슴농장을 비롯하여 대성리, 마석, 강촌, 양평 등등 여러 곳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대학시절 수많은 MT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은 그리 많지 않다. 그냥 밤새 선후배와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 정도가 고작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MT들이 모두 이름과 명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MT들을 "멀리 가서 길게 하는 술자리"로 바꾸어 표현하고 싶다. 실제로 내가 대학 3,4학년 때 이렇게 MT를 할 바에야 학교 근처에 좋은 호텔 빌려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아닐까 생각도 했었다. 졸업 후 회사에서도 몇 번 MT를 갔었지만, 장소만 민박에서 콘도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일반적으로, MT의 가장 큰 목적은 MT를 간 구성원들 간의 친목도모일 것이다. 술이 모임의 서머서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데 윗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러 먼 곳까지 가서 술만 먹고 오기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렇다면, 좀 더 유익한 MT를 위한 방법

은 없는 걸까? 필자의 최근 MT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MT성격과 MT가는 장소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필자는 지난해 겨울과 여름방학 중에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는 학생들과 MT를 갔었다. 이때마다 휴대용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학생들과 영화감상을 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특히 겨울 MT때 노동석 감독의 '마이 제너레이션' (2005)을 보고 "청춘이란 무엇인가?" 대해 벌인 열띤 토론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2007년 경영학과 봄MT때 했던 액티비티의 경우도 흥미롭다. 필자가 MT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MT에 무척 만족한 것 같다. 이 때 경영학과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교를 빌려 MT를 갔는데, 폐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귀신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서로 놀라고 놀래 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세 친해 질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의 "무서움"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 한다. 이외에도 등산, 산책, 혹은 사사토크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술 먹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다.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모니터링 내용 적극 반영 돼

이번 호 동대신문에서는 개강 후 학교의 문제점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판했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에 끝났어야 할 공사들이 지연되면서 수업 분위기에 지장을 주고 수강 정정기간이 지연되면서 학생 대부분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불편함을 1면에 실어 지적했고 공사 지연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사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논한 것은 연계성 있게 잘 짜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관에 비가 새는 모습과 장학금 횡령 파문 등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던 문제점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신장아 사건으로 문제제시 되었던 학력위주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파워 인터뷰로 연극학과 이윤택교수를 취재한 점은 참신했다.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과 같이 학력위주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만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또한 인터뷰 기사 옆에 이윤택교수의 작품에 대해 설명해준 것은 감독의 작품을 몰랐던 학생들에게도 이해를 높여주어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호 기사 중 강석

원 교수가 쓴 '달하나 천강에' 칼럼이 가장 와닿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친구나 선후배와 관계 맺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나홀로족'의 원인과 문제점, 그 양면성에 대해 읽고 나 또한 그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 대한 총평은 지난 주 '동대신문을 읽고'에서 지적된 점들이 대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탐방기에 사진부족과 지도에 이정표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 학력위주문제에 대해서도 참신함이 보였다.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여 발전하는 동대신문이 됐으면 한다.

유재연(경영대 경영2)

### 동지청소년의 집 도서관 '예꿈터'를 열며

## “예쁜 꿈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렴”



#### '동지 청소년의 집' 후원

200여명 교·직원 회원의 자발적인 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동지회는 1996년부터 11년 동안 동지청소년의 집을 후원해 왔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점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빨래와 청소를 해주며, 겨울철 난방 유류비와 학용품, 쌀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04년에는 전 동국인이 힘을 모아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해 주었다.

2005년 동지 청소년의 집은 판별로 된 가건물을 헐고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해,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과 장난, TV 시청으로 소일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우리 회원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마침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여명 되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 모금 통해 장서 마련

5월말부터 전 교직원들 상대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65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그 돈으로 1,600여권의 어린이 도서와 청소년 도서를 구입했고, 또 교보문고에서 600여권을 기증받아, 총 2,200여권을 확보하였다. 도서관은 공모를 통하여 '예꿈터'(예쁜 꿈이 자라는 터전)라는 뜻있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다.

서관일을 앞두고 8월 중순부터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도서 정리(기준자 표시, 장서인, 분류, 라벨 부착 등)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에서는 도서실이 들어가게 될 방을 수리하고 서가와 테이블, 의자를 주문하는 등 개관 준비를 마쳤다. 이 비용은 동지회의 적립금에서 충당하였다.

#### 꿈이 숨쉬는 도서관 개관

9월 8일 개관일 아침 10시에 우리는 책을 싣고 동지청소년의 집에 도착했다. 방바닥을 청소하고, 서가의 자리를 잡고, 38개의 책 박스를 풀었다. 새롭게 수리된 방에서, 새 서가에, 새 책을 한권 두권 꽂으니 넉넉 동안의 시름이 단숨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2,200권의 책을 다 꽂고 돌아서니, 한 방 가득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광경이 눈 앞에 그려졌다. 동국 가족들의 정성이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하고 생각하니, 그 동안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예꿈터'는 동지의 아이들이 꿈 많고,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로 커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꿈터'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기를 기대하며, 우리들은 더 좋은 '예꿈터'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며 동지를 떠났다.

김종철(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 동약은 시골벽적

### 성과평가시스템은 학교 발전 위한 필요조건

요즘 들어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2학기에 시범 시행될 성과평가시스템일 것이다. 원래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생물학 분야에서 생물체의 생존과 활동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며, 기업이나 대학을 포함한 조직의 생존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까지 적용된다.

시스템 관점은 생물체 혹은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투입, 투입된 자원의 변환, 변환된 최종물의 산출, 그리고 산출물에 관한 피드백이라는 네 가지 필수적인 활동이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학생, 기금, 시설 등)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원을 변환(교육 및 연구 활동 등)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졸업생, 연구업적, 사회적 기여 등)를 산출한 후, 이들에 관한 피드백(평판도 및 업적평가 등)을 통해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시스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피드백이 생물체 혹은 조직의 생존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구성요소인 반면, 평가시스템은 피드백의 객체가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생물체이든 혹은 조직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동국대학교 역시 나름대로의 평가시스템을 가져 왔으며, 2학기에는 통합된 성과평가시스템의 시범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적 위주의 개인 업적에 초점을 맞춘 사후평가 형식의 기존 평가시스템에 비하여 통합된 성과평가시스템은 미리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를 중요시 하며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한 시점에서의 '나의 실적'이 어떠한지 나보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기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혹자는 현재의 평

### 성과평가시스템, 경쟁력 향상인가 학문의 다양성 침해인가

이번 학기부터 '열린글터'를 폐지하고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동약은 시골벽적'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우리학교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시행하면 미치지 될 영역이 '교수의 경쟁력 향상인가 아니면 학문의 다양성을 침해인가'입니다.

가시스템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시스템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평가나 많은 강의에서 활용되고 있는 팀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평가도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일정 수 이상의 원어 강의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특정한 형태의 평가시스템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환경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혹자는 그러한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한 형태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 학교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그렇다"이다. 분명히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가시스템의 도입은 학교가 좋아질 수 있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은 여전히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독자가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다. 필요조건일 뿐인 성과평가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충분조건인 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용 경영평가팀장(경영학과 교수)

### 불필요한 평가잣대는 배제돼야

교수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육·연구·사회봉사 영역에 대해 평가받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실시해오고 있다. 2/3 이상 교수들이 서명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는 108프로젝트와 같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성과평가시스템이 오히려 대학의 본질과 연구를 훼손하고 교원까지 침해하기 때문이며 그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평가시스템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최상위 목표는 학문의 교육과 연구이며 이는 다양성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에 본교의 59개 학문영역과 세부전공이 다른 교수로부터 학생들은 다양한 교양과 전공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학문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모든 단과대학, 학과 및 개별 교수마저도 단지 17개의 획일적 잣대로만 계량화·서열화하고 있다. 이는 예술전공 학생과 공학전공 학생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여 1, 2등을 결정하는 것과 같

다. 이윤추구라는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에 적합한 성과평가 틀을 다양성이 생명인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대학 본질을 훼손할 것이기에 반대한다.

둘째, 성과평가시스템은 연구의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연구란 한 분야에 특출한 업적을 확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 성과평가시스템은 한 분야만 잡히는 교수보다 다방면을 조금씩 잡히는 교수들 더 좋게 평가하는 체제이다. 연구성과 평가는 개인별로 양과 질을 절대평가 해야 하나 현 제도는 전년대비 개선도를 상대평가하기에 우수연구를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다.

또한 연구란 연초에 계획하고 연말에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대상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연초 계획 대비 연말 달성도만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곧 1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는 단기 연구과제만 추구하도록 유도하여 연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성과평가시스템은 연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결여

되어 있다.

셋째, 성과평가시스템은 교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평가는 교육과 연구에 의해 행해져야하는데 현 제도는 자율이 보장되어야 할 교원에 대한 중앙통제적 관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자율성 즉, 교권은 법이 보장하는 장치이다. 교권이 법으로 보장된 이유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진리이외에는 타협하지 말라는 근본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 성과평가시스템은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상당수의 지표를 포함, 평가함으로써 교수의 근본인 학문의 길을 훼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기타 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총장의 독단적·초법적 지시로 시행될 수는 없다. 대학과 학문은 유구하기에 단기간에,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회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였고 총장은 개인계약 철회를 선언한 만큼 성과평가시스템의 폐지나 대폭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교수회장(경영정보학과 교수)

	동국관	상록원	원 향
금주의 식단	월 (9/17)	떡만두국밥반 (2000) 치즈볶음밥 (2000) 새우가스 (2500)	비엔티케첩볶음 (1800) 우거지갈비탕 (2500) 참치회덮밥 (2000)
	화 (9/18)	햄구이백반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치즈돈가스 (2500)	참치야채볶음 (1800) 동태매운탕 (25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수 (9/19)	빠다귀해장국 (2000) 매운오삼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해물경단 (1800) 독배기불고기 (2500) 열무비빔밥 (2000)
	목 (9/20)	참치잡자재 (2000) 쇠고기당면볶음덮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닭조림 (1800) 감자탕 (2500) 제육비빔밥 (2200)
	금 (9/21)	꼬치어묵우동 (2000) 제육김치덮밥 (2000) 햄박스테이크 (2500)	삼치조림 (2000) 부대찌개 (2500) 닭꼬치볶음밥 (2200)



### 독자 사진첩

#### 첫 만남, 설레임 ...

애꿎은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내 마음, 벌써 그대에게 들켰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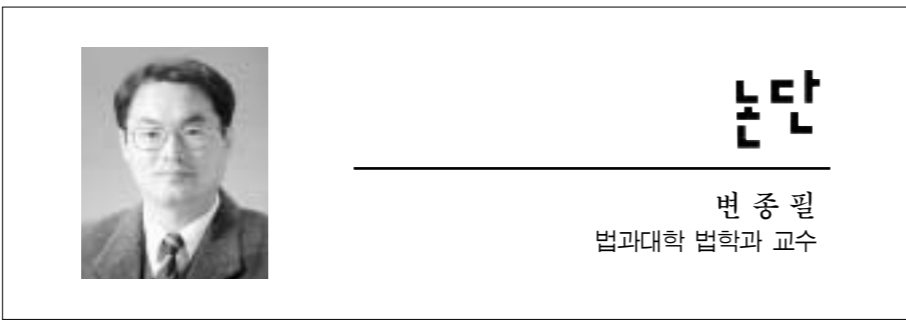
김창하(공과대 기계공2)

# 법은 정치나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 잇따른 재벌 박주기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법원이 공히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박주기식의 습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그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논단

변종필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판결은 법 논리 적용해야

첫째, 재벌의 범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정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한 내용을 털어놓았다.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고민을 거듭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장애와 국익을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벌의 경제적 위기를 우려스러운 결과가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참작사정이 될 수는 없다. 법원이 실형선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장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의 논리를 정치나 경제의 논리로 대체한 꼴이다. 법원은 법을 말해야지 정치를 행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재벌의 유사범죄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게 됨으로 실형선고의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 해당 법규의 의연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한 잘못이 있다.

### 8천억 사회환원은 사실상 벌금형

둘째, 집행유예에 부가한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 회장 사건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약속한 사회공헌(2013년까지 연 1,200억원씩 8,400

억원을 이행할 것,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에 대해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일간지와 경제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봉사명령이라고 설명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형법 제62조의2). 하지만 보호관찰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때 사회봉사는 일정시간(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정하여 명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의 사회환원은 사회봉사명령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현행 법규에 반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8,400억원의 사회환원 약속을 사회봉사명령의 형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8,400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문제다. 또한 준법강연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준법강연을 강연하거나 기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의사나 생각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 무너진 재판부의 신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벌비리사건에 대해 술한 고심 끝에 내려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재판부의 생각대로 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내려진 합당한 판결이기보다는, 법이 추구하는 이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른바 국익의 이름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합리적 정의에 기초한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비껴감으로써 법의 권위, 이로써 일반 국민의 법 및 그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또 한 번 떨어뜨린 판결이 되고 만 셈이다. 그러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풍도 아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보리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네

가을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의 계절인가. 할 말이 없네, 소설가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 현재진행형이다. 짧고 푸른 학생들 앞에서 뽀빠리를 말해야 하는 입장이라 힘겨운 시간들이다.

그래서인지 일본 천태종의 창시자 사이초(叡澄, 767-822) 스님의 말씀이 자주만 되새겨진다. "무엇을 나라의 보배라 하는가? 도심(道心) 있는 자를 나라의 보배라 말한다." 무슨 기술이나 빼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도심을 가진 이가 참으로 나라의 보배라는 말씀이다. 도심, 즉 도를 닦으려는 마음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국보(leader)라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짓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다. 가장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거짓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게 된다. '유마경'에서, "곧은 마음(直心)이 곧 극락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러한 국보론, 즉 나라를 지킬 근본철학

이 서있지 않음을 지금 여실히 보고 있다. '논어'에서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이제 다시 정직한 마음부터 챙기자! 정직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자. 오계(五戒)의 하나가 아닌가. "○○○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가 소극적이라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서는 바로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스스로만은 곧은 마음을 지키려는 사투(死鬪)에 다름 아니다. 그 이상 더 적극적인 행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 모두가 거짓을 벗고 나서 정직한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다. 곧은 마음을 가진 곧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찬 공동체 만들기는 꿈일 것인가? 당장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도 힘빠진 다리를 끌고서 강의실로 간다. 푸르른 우리 젊은이들의 눈망울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는다.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날에는 곧은 사람이 주인 노릇 하는 곧은 세상이 될 수 있겠는가.

김호성  
인도철학과 교수

## 메아리

### 박제교육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고대희랍어에서 유래했다. 이 때 지혜라 함은, 일상생활의 실용적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조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른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포함된다.

▲주요 대학들의 2학기 수시모집이 대부분 마감됐다.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른바 '묻지마 지원'이 뿔뿔기 때문이다. Y대는 36대 1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고 K대 의예과는 173대 1이라는 이례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묻지마 지원'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올해 수능 등급제를 처음 시행하는 데다 내신 비중 논란까지 겹친 탓으로 보인다. 수시 입학 전형의 다양화, 수시모집 인원 증가와 함께 수능 등급제 시행에 따른 입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이 곳 저 곳 보험 삼아 여러 군

데 지원하는 것이다. 입시 상담 교사들마저 올해 합격선 예측에 애를 먹어 원서를 쓰겠다는 학생들을 말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자가 대폭 늘면서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수시 2학기 전형료로만 30억 원 넘게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10개가 넘는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원서 내는 데만 백만 원이 넘게 드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뀐다. 수능을 치는 그 날까지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수험생들을 따라다닌다. 한 해 한 해 입시제도가 바뀌다 보니 수험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지도교사들도 갈피를 잡지 못해 입시지도도를 하는데 애를 먹는다. 그렇다면 교육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바탕이 돼야 하는가. 경쟁의 논리,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키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할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철학이 빠진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대학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각종 경영논리와 시장논리를 대학교육에 접목시킨다고 나라 전체 교육제도가 이 물살에 휩쓸려야 하겠는가.

최미혜 기획부장  
Imisonaral@dongguk.edu

## 사설

### '클린 동국 캠페인' 학교도 동참하자

총학생회가 '클린 동국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 안전운행과 주차문화 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불법광고 제거, 학내생활 에티켓 지키기, 소음 방지 등 요일별로 다른 주제를 갖고 진행했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는 총학생회의 노력에 차량을 운행하는 학내구성원들이 호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학교는 비좁은 캠퍼스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는 고질적인 현안이다. 하루 동안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대수는 약 1천 2백 대라고 한다. 이 중에서 장시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7백여 대이다. 이에 비해 공식적인 주차면수는 420여 곳밖에 되지 않는다. 즉 3백여 대의 차량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주차장이 아닌 도로 갓길이나 인도에 무단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항상 학교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보행에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총학생회가 캠페인을 진행한 날에는 고질적으로 출근 하는 차량이 2백여 대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참여도라면 주차 공간부족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이제 학교 측에서도 나서야 한다. 학생회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 만큼 학교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학교는 주 5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5부제'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5일 중 하루만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으로 이번 캠페인에서 거둔 효과와 비슷하게 차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뜻 깊은 캠페인으로 동국인들에게 배려의 마음을 심어준 총학생회의 활동은 긍정적이다. 학교 측도 학생회의 캠페인에 행정적 뒷받침으로 화답해야 할 때다.



<b>동대신문</b>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윤재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 경주캠퍼스 (우)1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말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 작가 정이현 강연회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 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 제3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 2007. 9. 20(목) 오후2:00-4: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 <달콤한 나의 도시>, <오늘의 거짓말>의 저자 정이현  
5. 내 용 : 강연 및 사인회  
6. 인 원 : 80명  
7.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 중앙도서관  
9. 후 원 : 문화과지식사  
10. 기 타  
\* <작가에게 물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한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과 상품권을 나눠 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는 choinw@dongguk.edu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9월22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접수 : 9. 17 (월) ~ 9. 19(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2. 입금 : 9. 17 (월) ~ 9. 19(수) 24:00까지 (계좌이체)  
3. 접수증 출력기간 : 9. 21(금) ~ 9. 22(토)  
4. 취소 시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외국어PASS제-영어패스시험 신청-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 2007. 9. 22(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 영어PASS제 미취득자  
8. 응시료 : 5,000원  
9. 입금마감일 : 2007. 9. 19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10. 주의사항  
가.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인름 표기: 예, 홍길동 2025123)  
나. 부정행위 적발시 징계조치 됨.  
11.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4. 2학기 모의토익 시험일정 안내  
9월 22일(토) / 10월 27일(토) / 11월 24일(토) / 12월 22일(토)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 몽골에 나무를! 사막을 푸르게! 사막화·황사 방지 동국대학교 학생의 숲을 조성합시다!

솔솔거는 몽골어로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의미합니다. 솔솔거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님의 소중한 나무를 매년 5월 대신해서 몽골에 심어드립니다. 나무가 큰 모습은 홈페이지(www.simin.org)와 메일로 소식을 보내드려요. 여러분의 참여는 몽골 사막화·황사방지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회원가입 방법  
1. 이메일 이용 : 이메일(syskhn@simin.org)과 후원금(한 모퉁 당 천원)을 보내 주시면 즉시 회원가입이 이뤄집니다. 후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2. 직접 가입 : 9월 20일 한가위 한마당을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가을축제 10월 9, 10, 11일에 중앙도서관, 해화관 건물 앞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975301-01-001932 (동국대 분들은 보내실 때 꼭 동국대 000라고 밝혀주세요) 예금주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동국대 산하 황사사막화방지 연구소와 협력기관)  
▶ 방문 접수 : 동국대학교 해화관 4층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 (강호재 교수, 산림생명공학 연구실, G422)  
문의 02)711-6675 (시민정보미디어센터), syskhn@simin.org 02)2260-3316 (동국대학교 산하 황사사막화방지 연구소) 010-7234-8070 이수광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 연구원) 820316@hanmail.net 010-3584-0545 유원재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회장) 019-420-1442 박지연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술소모임 나모회장)

많은 관심이 있을 경우 몽골 측과 협력하여 동국대학교 학생의 숲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세우고 우리 동국인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 국교가 불교인만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견학이념으로 하는 우리학교의 불교정신과 부합하여 우리 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가져오는 기회가 됩니다.

## 동국대학교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

# 우리학교 스포츠, 내가 책임진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시선이 계속 우리학교 대운동장으로 향한다. 시선을 사로 잡은 주인공은 다른 이년 우리학교 체육부 소속 운동선수들, 멋지고 늠름하다. 대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인 선수들을 보면서 일부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체육부에 대해 궁금해 했을 것이다. 해서, 밀착취재를 했다. 체육부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주로 손꼽히는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농구부 정재홍(제교)

- 생년월일 : 1986.1.26 • 신장 : 178 • 체중 : 78
- 주요경력 :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취미 : 음악감상, 영화보기 • 이상형 : 착하고 예쁜 사람
- 싸이월드 주소 : <http://www.cyworld.com/jjh8583>

### 축구부 김진현(제교2)

- 생년월일 : 1987.7.6 • 신장 : 191 • 체중 : 83
- 주요경력 : 2007 청소년축구대표
- 취미 : 컴퓨터 게임(서든어택) • 이상형 : 귀엽고 애교가 많은 사람
- 싸이월드 주소 : <http://www.cyworld.com/kjhlove21>

### 야구부 배영섭(제교3)

- 생년월일 : 1986.6.27 • 신장 : 180 • 체중 : 78
- 주요경력 : 2006 대륙간컵야구대회
- 취미 : 컴퓨터 게임 • 이상형 :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 싸이월드 주소 : 비밀이야

“저는 농구가 좋아요” 해맑게 웃는 정재홍 선수의 모습에서 농구에 대한 애정이 한껏 묻어났다. 많은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선수 생활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식기 마련인데 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다. ‘대학생 선수들 중에 손꼽힐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가드이다’라는 농구팀 이호근 감독의 말처럼 정 선수는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세계대회에서 큰 활약을 보여 왔다.

그는 선수생활 중 이상백대 대학 농구대회에서 첫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에 발을 내딛었을 때 선수로서 뿌듯했다고 한다. 농구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부상이 잦은 종목 중 하나이지만 그는 10년이 넘는 선수 생활 중에 부상도 슬럼프도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벤치 멤버였기 때문에 농구를 맘껏 할 수 없었던 것이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마 그의 회노애락은 농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가 보다. 대학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신입생때 우리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예쁘다는 소문에 교양을 일부러 문화관에 가서 들었다”며 “하지만 학기 내내 순수하게 구경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인터뷰 도중 내내 “농구를 할 때 마다 즐겁다”며 공을 만지작거리는 정 선수. 그 모습을 보면서 ‘농구는 나의 운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학교 축구부의 골문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현 선수. 올해 청소년축구국가대표로 될 만큼 실력이 뛰어난 그는 이번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표 예비명단에 몇 안되는 대학생 중 한명으로 뽑힌 바 있다.

골키퍼는 경기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한다.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골키퍼가 경기의 기복에 흔들리면 그 경기는 이미 진 경기라며 짐작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김용대 선수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김 선수.

체육부가 생활하고 있는 금강관 내에서 불편한 점을 묻자, 한참을 망설이더니 “머리 단속이 심해 마음대로 머리를 기르지도 못한다”고 투덜거리며 대답했다. 현재 염색을 하고 있는데 코치님께 걸릴까봐 살짝 겁이 난다고. 그런 그의 모습에서 선수가 이전에 평범한 21살의 청년의 모습이 어려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선발되고 싶고 축구 분과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리그에도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히는 김진현 선수. 앞으로 TV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활약하는 그의 모습을 보길, 그리고 태극마크는 물론 나아가 유럽리그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김진현 선수를 만나길 바란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탄탄한 실력으로 팀의 믿음직한 기둥이 되는 선수가 있다. 야구부의 배영섭 선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을 주고 받는게 좋아 야구를 처음 시작했다는 그는 작년에 대만에서 열린 대륙간컵 야구대회에서 전체 타율 순위 2위를 차지 할 만큼 뛰어난 선수로 성장했다.

지난 대학야구 대회에서도 타율 3할 2푼 6리로 높은 타율을 기록했는데 그 비결을 물어왔다. 그는 “연습 중에 공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공의 구질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 판단한 다음 방망이를 휘두른다”고 한다.

배영섭 선수는 투수가 어떠한 공을 던져도 맞받아치는 재주를 가진 ‘스즈키 이치로’ 처럼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야구 관중들에게 ‘타자’ 하면 ‘배영섭’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선수가 되겠다는 배영섭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07 **한가위**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행사안내

가치 귀향버스  
가. 행사기간 : 2007. 9. 15(월) ~ 9. 19(목) / 10일간  
나. 운행시간 : 행사기간의 오후  
다. 귀향일시 : 2007. 9. 20(토), 9:00시 / 9:00분  
라. 귀향노선 : 평택(용매리)지점 → <http://dgucop.dongguk.ac.kr>  
마. 귀향버스 접수방법  
1) 인터넷 : <http://dgucop.dongguk.ac.kr>  
2) 현장접수 : 상륙면 앞  
3) 전화문의 : 20%추가요금  
※ 당일 도시락, 기념품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한가위 한미마을 행사  
가. 행사일시 : 2007. 9. 20(토), 11:00 ~ 16:00시  
나. 행사주최 : 생활협동조합 / 송학센터  
다. 행사내용 : 전통문화, 음식체험, 참가취득상품 판매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주말마다 가까이서  
T-2를  
부처님 만나는 기쁨

정각원 토요일법회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법회 안내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1월 15일부터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 상 : 일반인 및 유망가족  
• 주관법회 : 2007. 9. 15(토) 09:30 ~  
최종법회 : 11월 15(토) 09:30 ~ 11월 15(토) 11:00  
• 법회에 오신 분에게는 108종주와 불교잡지 제공도 합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제	강·법사	비고
9	15(토)	개원법회	월은 큰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22(토)	부처님의 이해 I - 불교와 인도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9(토)	부처님의 이해 II - 탄생과 의미	정병조	문과대학 교수
10	6(토)	기도 - 생활법회	해거 스님	금강선원장
	13(토)	부처님의 이해 III - 출가와 수행	해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 IV - 깨달음과 내용	정종석	불교대학 부학장
	27(토)	부처님의 이해 V - 교화와 열반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11	3(토)	성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답사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10(토)	불교의 수행 I - 인경과 독송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17(토)	불교의 수행 II - 불교와 수행	성본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 III - 수행의 구조	혜원 스님	불교대학 교수
12	1(토)	기도 - 생활법회	진욱 스님	석천사 주지
	8(토)	불교의 수행 IV - 염불수행	보광 스님	불교대학 교수
	15(토)	불교의 수행 V - 선 수행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문과대학 교수
2008.1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5(토)	기도 - 생활법회	정각원	전 조계종 포교원장
	12(토)	초기불교의 이해 I - 초기불교와 교단	안양익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초기불교의 이해 II - 경전 성립과 계율	신성현	불교대학 교수
	26(토)	초기불교의 이해 III - 주요 교설1	김종욱	불교대학 교수
2	2(토)	초기불교의 이해 IV - 주요 교설2	황순원	불교대학 교수
	16(토)	부파불교의 이해 I - 부파불교 교단	고영선	불교대학 교수
	23(토)	부파불교의 이해 II - 부파불교 특징	유재선	불교대학 교수

정각원 개강 법회

- 시 간 : 9월 20일 (목)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
- 대 상 : 일반인 및 동국 가족
- 초빙법사 : 정법 큰스님(오대산 원장사 주지)